

2014년 임금동향과 2015년 임금전망

김복순*

I. 2014년 임금동향

1. 2014년 임금상승률 둔화, 실질임금상승률은 1%대 초반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4년 임금상승률은 2013년에 이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대의 저물가 상황에서 명목임금상승률의 둔화는 실질임금상승률의 둔화로 이어져 2014년 실질임금상승률이 1.3%까지 떨어졌다. 특히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의 실질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2013년 5.1%→2014년 -0.5%)를 기록하였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이하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5%로 2013년에 비해 1.4%p 하락하면서 임금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크게 둔화한 이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012년 이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전체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90천 원으로 상용직은 3,378천 원, 비상용직은 1,387천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4%, 0.7% 상승에 그쳤다. 2014년 임금상승률이 둔화한 데는 비상용직의 임금상승률 둔화뿐만 아니라 상용직, 특히 상용직의 정액급여가 둔화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상용직의 임금내역별 변화를 보면, 2014년 상용직 임금상승률이 2%대의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한 데는 정액급여 상승률이 3%대 초반에 머물면서 예년의 수준만큼 증가하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정액급여의 경우 국제금융위기 이후 4~5%대의 증가율을 유지해 오다가 2014년에는 전년대비 1.2%p 감소한 3.2% 증가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표 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 천 원/월, 시간/월, %,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체 노동력 조사	전체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 (상승률)	2,569 (-)	2,636 (2.6)	2,816 (6.8)	2,844 (1.0)	2,995 (5.3)	3,111 (3.9)	3,190 (2.5)	
	실질임금상승률	-	-0.1	3.8	-2.9	3.1	2.5	1.3	
	상 용 직	임금총액 (상승률)	2,802 (4.4)	2,863 (2.2)	3,047 (6.4)	3,019 (-0.9)	3,178 (5.3)	3,299 (3.8)	3,378 (2.4)
		실질임금상승률	-0.2	-0.5	3.4	-4.7	3.0	2.5	1.1
		정액급여 (상승률)	2,057 (3.3)	2,139 (4.0)	2,234 (4.5)	2,341 (4.8)	2,470 (5.5)	2,578 (4.4)	2,660 (3.2)
		초과급여 (상승률)	179 (7.5)	175 (-2.2)	196 (12.2)	179 (-8.4)	181 (1.0)	184 (1.7)	201 (9.3)
		특별급여 (상승률)	566 (7.7)	550 (-2.8)	617 (12.3)	498 (-19.3)	527 (5.8)	537 (1.8)	516 (-3.7)
		비상용직 임금총액 (상승률)	1,052 (-)	1,073 (1.9)	1,056 (-1.6)	1,215 (15.1)	1,293 (6.4)	1,377 (6.5)	1,387 (0.7)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임금총액 (상승률)	1,846 (5.8)	1,852 (0.3)	1,949 (5.2)	2,032 (4.3)	2,104 (3.5)	2,181 (3.7)	2,231 (2.3)
		실질임금상승률	0.1	-1.6	2.5	-0.2	1.9	2.2	0.7
가계동향 조사	전국(2인 이상, 근로자가구) (상승률)	3,287 (6.1)	3,280 (-0.2)	3,435 (4.7)	3,613 (5.2)	3,838 (6.2)	3,957 (3.1)	4,072 (2.9)	
	도시(2인 이상, 근로자가구) (상승률)	3,383 (7.0)	3,322 (-1.8)	3,479 (4.7)	3,670 (5.5)	3,885 (5.9)	3,993 (2.8)	4,098 (2.6)	
소비자물가상승률		4.7	2.8	3.0	4.0	2.2	1.3	1.3	
실질GDP상승률		2.8	0.7	6.5	3.7	2.3	3.0	3.3	
근로시간 (월)	전체근로자(5인 이상) (상승률)	176.7 (-)	176.1 (-0.3)	176.7 (0.3)	176.3 (-0.2)	174.3 (-1.1)	172.6 (-1.0)	171.4 (-0.7)	
	상용직 (상승률)	184.8 (-1.9)	184.4 (-0.2)	184.7 (0.2)	182.1 (-1.4)	179.9 (-1.2)	178.1 (-1.0)	177.1 (-0.6)	

주 : 1)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상용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던 매월노동통계조사를 2008년도부터 전체 근로자로 확장한 것임.

2) 2011년 이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합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하여 조사대상을 종사자 1인으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변경하며, 산업분류를 개편(KSIC 8차 → KSIC 9차)하고 2008년 이후 시계열 연계자료를 재산출함.

3) 임금자료 중 고용노동부 자료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통계청 자료는 가구조사로 임금근로자 전체가 대상임.

4)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은 각 연도 6~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함.

5)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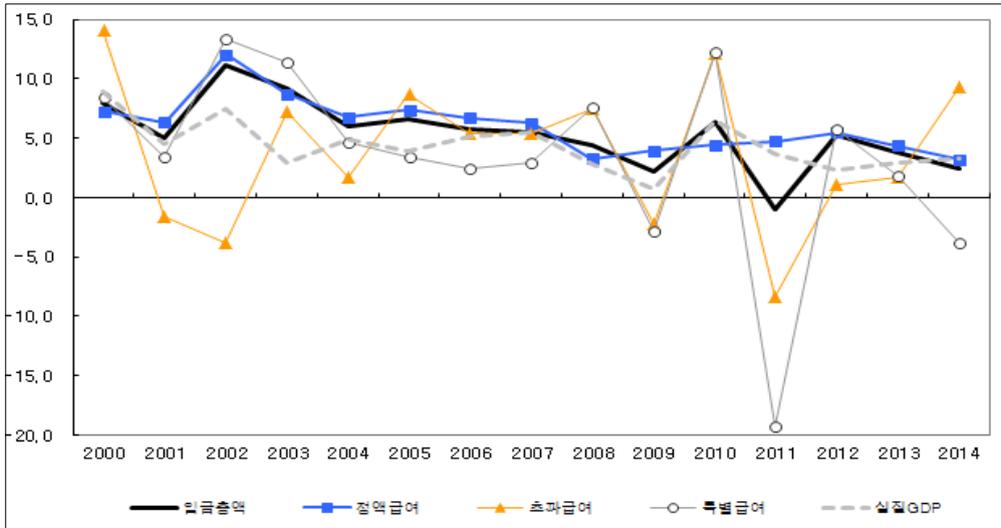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_____, 『가계동향조사』,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그림 1] 상용직의 임금내역별 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1)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은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을 이용함.
 2) 2011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주요원인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감소 영향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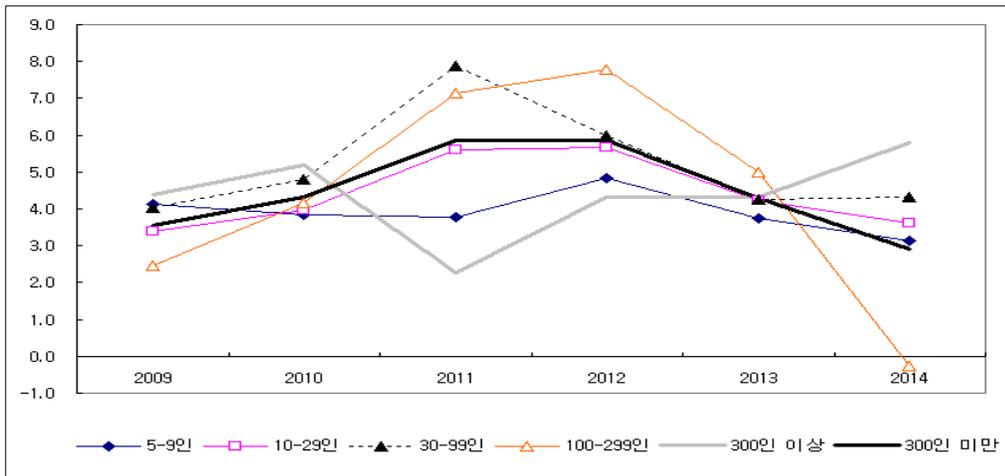
상용직의 정액급여는 향후 임금수준에 누적되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난 5년간 경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에 추세를 뒤집고 둔화하기 시작해 이 흐름은 2014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금융위기를 거쳐 경기가 회복하는 시기에는 특별급여와 초과급여에 의해 임금상승률 변화의 폭이 결정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용직의 특별급여 또한 전년대비 5.5%p 하락한 마이너스 증가율(-3.7%)을 기록하였다.

한편 상용직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상승률이 둔화·감소하는 가운데 상용직의 초과급여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직 총근로시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시간이 예년보다 증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의 정액급여에서의 변화를 사업체 규모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규모에서 정액급여 증가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용직 정액급여의 둔화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100~299인 규모 사업체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마이너스(-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급여 증가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100~299인 규모 사업체를 산업별로 보았더니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9.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3.9%), 숙박 및 음식점업(-1.5%)에서 정액급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

[그림 2] 상용직의 사업체 규모별 정액급여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여가관련 산업, 그리고 이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박및음식점업에서 임금증가율이 하락한 것은 2014년 상반기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경기전반에 미친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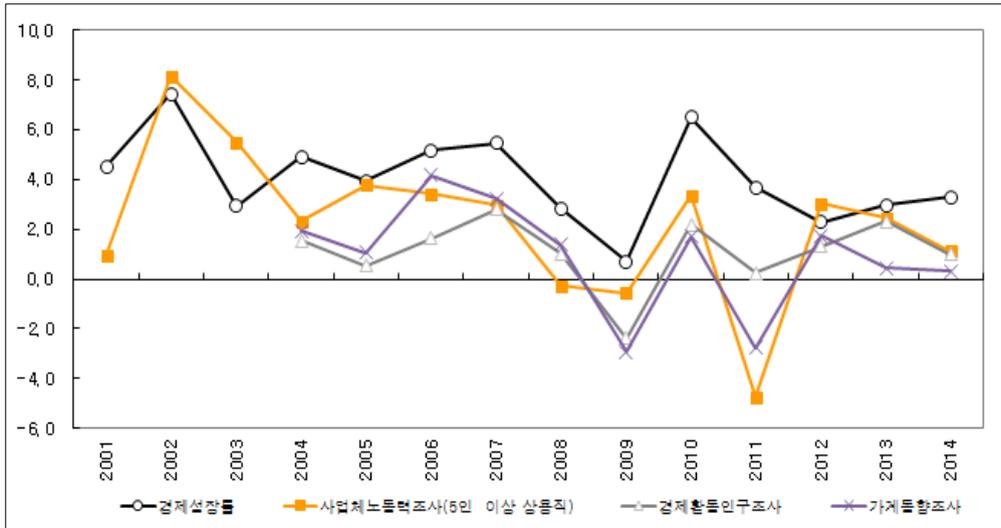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외에 임금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두 조사(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이하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도 2014년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2014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231천 원으로 전년대비 1.4%p 감소한 2.3% 상승에 그쳤다. 또 「가계동향조사」에서도 2인 이상 전국 근로자가구의 2014년 월평균 근로소득은 4,072천 원으로 전년대비 0.2%p 감소한 2.9% 상승에 머물렀다. 이렇듯 임금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 조사 모두에서 2014년 임금상승률의 둔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14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전체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3% 수준(「사업체노동력조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수준과 같은 1.3%인 반면 명목임금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에는 전년대비 성장률이 소폭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1.2%p 감소하여 경기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간이 비교적 짧고 저임금인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도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를 이끈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

[그림 3] 실질GDP증가율과 실질임금증가율 추이

(단위 : %)



- 주: 1) 실질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임.
- 2) 「기업체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은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을 이용함.
- 3) 2011년 「기업체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주요원인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감소영향임.

자료: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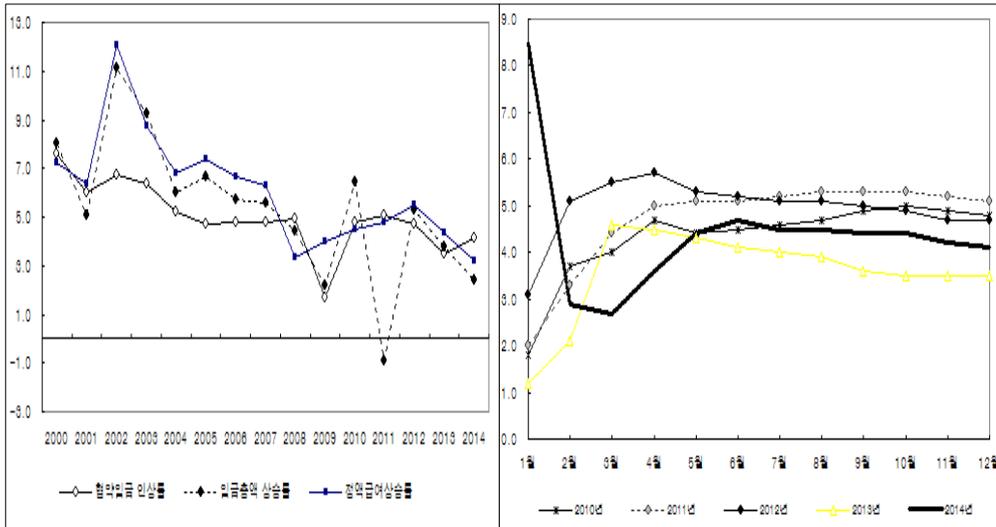
2. 2014년 임금교섭과 노사간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상승률은 경제 여건 및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되므로 노사관계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임금교섭 실태를 조사하여 ‘협약임금 인상률’을 매월 발표하고 있다. 말 그대로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임금은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가 제외되고, 정액급여 등의 고정성 급여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노동력조사」로 산정된 ‘임금총액 상승률’보다 연도 간 변동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협약 임금인상률은 정액급여의 변동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14년 협약임금 인상률(총액기준)은 4.1%로 2013년에 비해 0.6%p 증가함으로써 정액급여의 흐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액급여의 상승률 둔화세가 2013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약임금인상률 둔화세는 2014년에 꺾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014년 내내 핫이슈였던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대규모 사업체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연간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좌)와 월별 협약임금인상률(우)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임금총액 상승률과 정액급여 상승률은 5인 이상 상용직 기준임.

자료: e-나라지표, www.inde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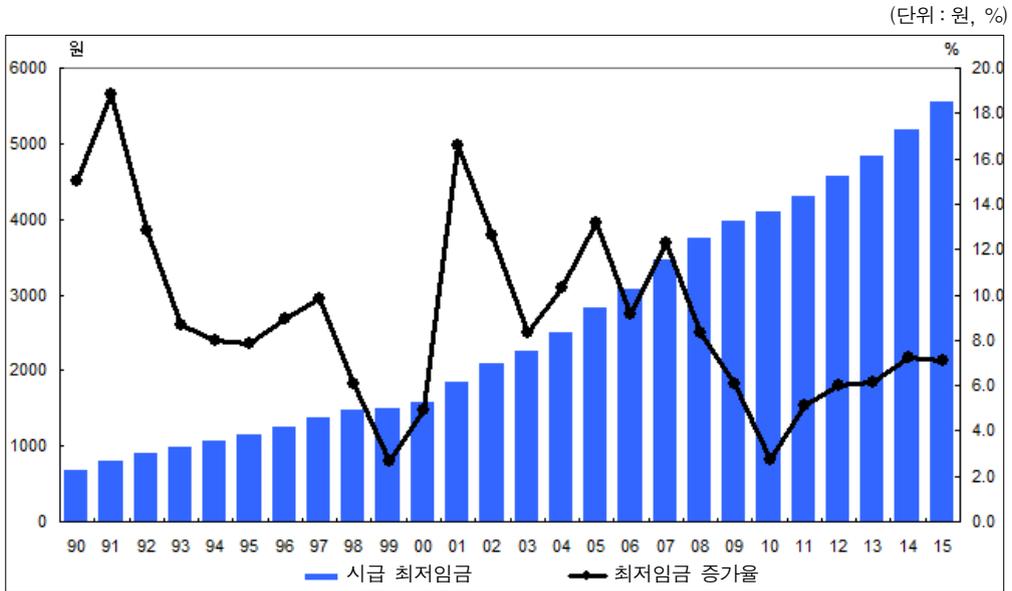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을 보면, 과거에는 대체로 협약임금인상률이 3~5월 타결된 이후부터는 교섭타결 시점과 임금인상률 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5월 교섭타결 이후 지속적으로 협약임금인상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상반기에는 예년의 추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6월에 들어서서야 협약임금인상률이 전년동월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시작했고, 월별 협약임금결정 진도율도 전년동월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2월이 되어서야 82.5%로 전년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을 결정하기까지는 경기 등 경제여건과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4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5,58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4년 대비 7.1% 인상한 것이며 2년 연속 7%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유지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다 2010년 2.8%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시간당 평균임금 기준)은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8%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 9.6%까지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12.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20% 중반 수준으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상용직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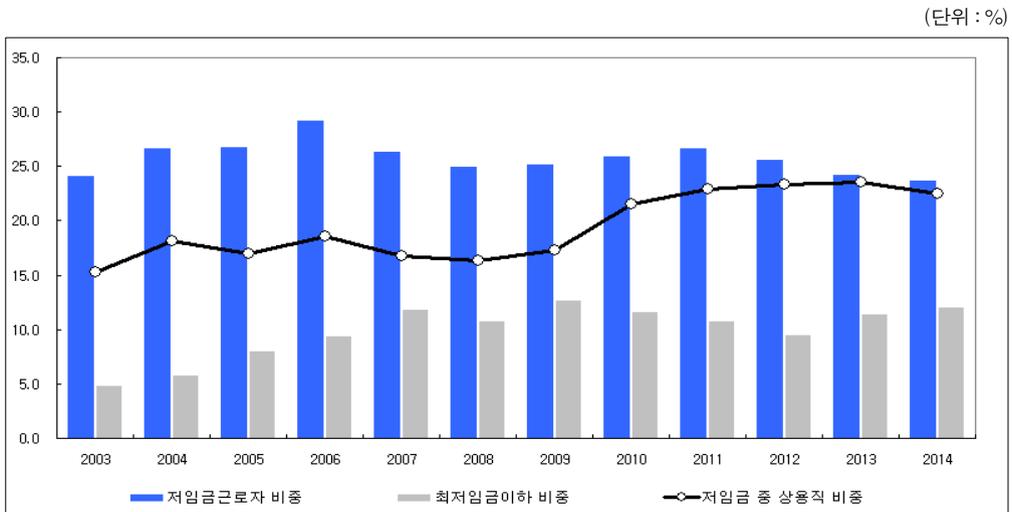
운데 상용직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0년 20%를 넘어선 이후 최근까지 22~23%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용직 고용증가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최근 고용증가세는 상용직이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임금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림 5] 최저임금(시급) · 최저임금증가율 추이



자료 : e-나라지표, www.index.go.kr

[그림 6] 저임금근로자 · 저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및 최저임금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최근 2016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이가 디플레이션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실질임금을 인상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의지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은 충분히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2014년 부문별 임금동향

1.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폭 확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상용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00~299인 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임금상승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299인 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5.1%p 감소하면서 마이너스(-1.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은 전반적으로 2013년 대비 둔화된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확대되어 사업체 규모 간 임금상승률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 기준) 또한 2013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용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상용근로자 전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2005	2,404 (6.6)	1,783 (8.6)	2,081 (7.0)	2,259 (6.3)	2,517 (5.4)	3,357 (6.1)
2006	2,542 (5.7)	1,886 (5.8)	2,187 (5.1)	2,413 (6.8)	2,646 (5.1)	3,493 (4.1)
2007	2,683 (5.6)	1,957 (3.7)	2,331 (6.6)	2,574 (6.7)	2,836 (7.2)	3,744 (7.2)
2008	2,802 (4.4)	2,055 (5.0)	2,385 (2.3)	2,593 (0.7)	2,928 (3.2)	3,921 (4.7)
2009	2,863 (2.2)	2,115 (2.9)	2,442 (2.4)	2,682 (3.4)	2,957 (1.0)	3,934 (0.3)
2010	3,047 (6.4)	2,212 (4.6)	2,561 (4.9)	2,837 (5.8)	3,126 (5.7)	4,291 (9.1)
2011	3,019 (-0.9)	2,186 (-1.2)	2,562 (0.0)	2,864 (0.9)	3,113 (-0.4)	4,273 (-0.4)
2012	3,178 (5.3)	2,295 (5.0)	2,711 (5.8)	3,046 (6.4)	3,355 (7.7)	4,424 (3.5)
2013	3,299 (3.8)	2,389 (4.1)	2,815 (3.8)	3,145 (3.2)	3,484 (3.9)	4,583 (3.6)
2014	3,378 (2.4)	2,434 (1.9)	2,931 (4.1)	3,258 (3.6)	3,443 (-1.2)	4,827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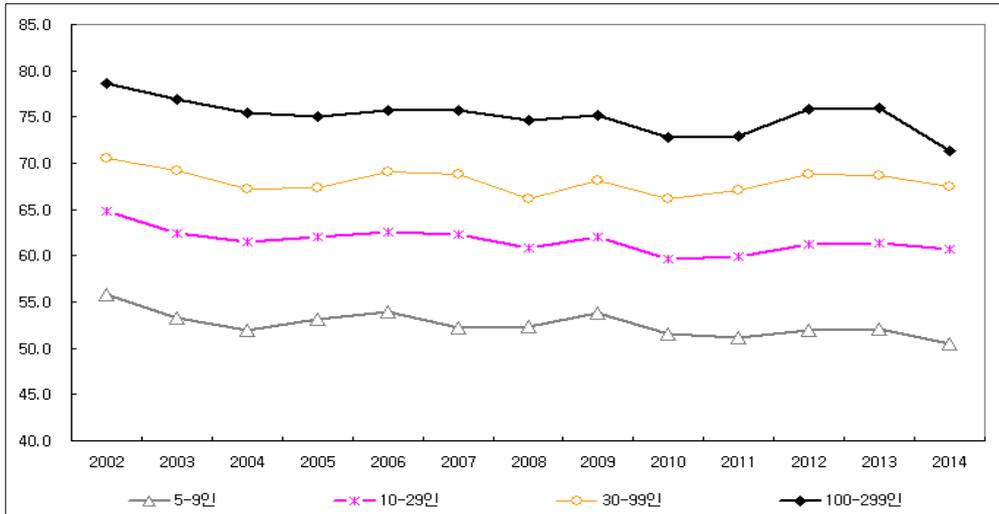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그림 7〕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 추이

(단위: %, 300인 이상=100.0)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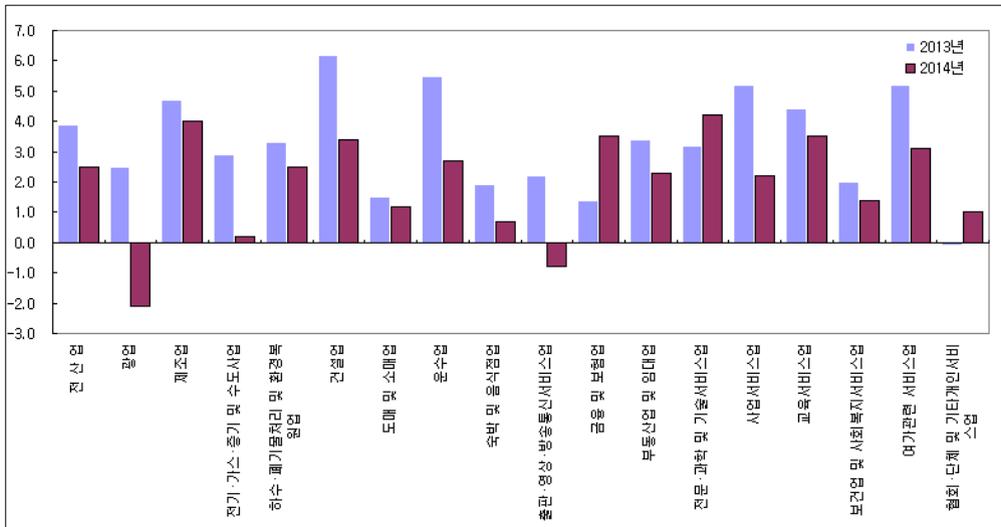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의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2013년 대비 확대되었다. 특히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00~299인 규모 사업체에서 임금격차는 71.3%로 2013년 대비 4.7%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9인 규모 사업체의 임금격차는 50.4%, 10~29인 규모 사업체는 60.7%, 30~99인 규모 사업체는 67.5%로 2013년 대비 0.7~1.7%p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국제금융위기 직후 확대되었던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가 2013년까지 상당부분 축소되는 추세였던 것과 달리, 2014년에는 100~299인, 5~9인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둔화

2014년 산업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광업(-2.1%)과 출판, 영상 및 방송통신서비스업(-0.8%)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한 산업 중에서도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임금상승률이 2013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전년대비 임금상승률 둔화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산업별 임금상승률 비교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3. 비상용근로자의 상대임금은 여전히 상용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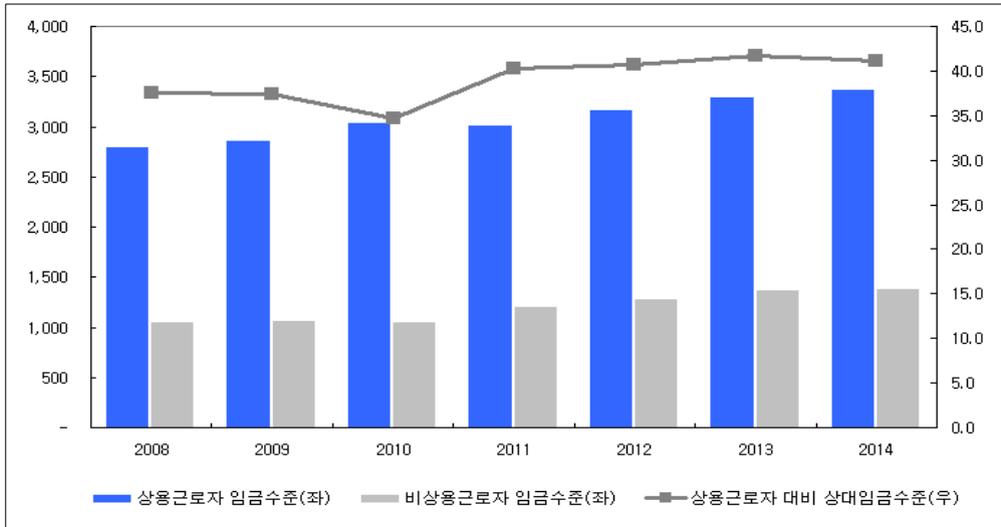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별(상용직과 비상용직) 상대임금수준은 2010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4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용직근로자 기준 비상용직근로자의 상대임금 수준은 41.1%로 2013년 대비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비상용직 모두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가운데 비상용직의 임금상승률 둔화가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의 임금격차는 2013년에 비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의하면 상용직 기준 비상용직(임시·일용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46.6%로 201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용직의 평균임금은 2,748천 원으로 전년대비 2.0% 상승한 반면 비상용직(임시·일용직)의 평균임금은 1,280천 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하면서 임금격차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보다는 일용직의 임금상승폭이 커 일용직의 임금격차 축소 또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를 통한 종사상 지위별 상대임금수준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상용직 기준 비상용직의 상대임금수준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및 비상용근로자의 상대임금수준 추이

(단위: 천 원/월,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표 3>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임금 추이

(단위: 천 원/월, %)

	종사상지위별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수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상용직=100)	일용직 (상용직=100)	비정규직 (정규직=100)
2000	1,527 (-)	852 (-)	646 (-)			55.8	42.3	
2001	1,649 (8.0)	916 (7.5)	689 (6.7)			55.6	41.8	
2002	1,769 (7.3)	971 (5.9)	760 (10.3)			54.9	43.0	
2003	1,958 (10.7)	1,032 (6.4)	759 (-0.2)	1,678 (15.3)	1,028 (5.3)	52.7	38.8	61.3
2004	2,036 (4.0)	1,080 (4.6)	779 (2.6)	1,771 (5.6)	1,152 (12.0)	53.0	38.2	65.0
2005	2,117 (3.9)	1,102 (2.0)	783 (0.6)	1,846 (4.2)	1,156 (0.4)	52.1	37.0	62.7
2006	2,184 (3.2)	1,139 (3.4)	814 (4.0)	1,908 (3.4)	1,198 (3.6)	52.2	37.3	62.8
2007	2,299 (5.3)	1,163 (2.1)	823 (1.1)	2,008 (5.3)	1,276 (6.5)	50.6	35.8	63.5
2008	2,409 (4.8)	1,212 (4.2)	875 (6.3)	2,127 (5.9)	1,296 (1.6)	50.3	36.3	60.9
2009	2,419 (0.4)	1,170 (-3.5)	858 (-2.0)	2,201 (3.5)	1,202 (-7.3)	48.4	35.5	54.6
2010	2,500 (3.4)	1,221 (4.4)	898 (4.7)	2,294 (4.2)	1,258 (4.7)	48.8	35.9	54.8
2011	2,567 (2.7)	1,275 (4.5)	945 (5.3)	2,388 (4.1)	1,348 (7.1)	49.7	36.8	56.4
2012	2,623 (2.2)	1,289 (1.1)	979 (3.6)	2,460 (3.0)	1,393 (3.3)	49.1	37.3	56.6
2013	2,695 (2.7)	1,297 (0.6)	1,022 (4.4)	2,546 (3.5)	1,428 (2.5)	48.1	37.9	56.1
2014	2,748 (2.0)	1,338 (3.2)	1,083 (6.0)	2,604 (2.3)	1,453 (1.7)	48.7	39.4	55.8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한편 고용형태로 구분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정규직 기준)은 55.8%로 2013년에 비해 감소하여 임금격차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상승률(1.7%)이 정규직의 임금상승률(2.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은 국제금융위기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정규직 임금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정규직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2013년 56.1%에서 2014년 55.8%로 감소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은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60%대를 회복하지 못한 채 50% 중반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2015년 임금상승률 전망

1.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2015년 임금인상률은 4.1%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기여분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임금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우선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y = AL^\alpha K^\beta$, $\alpha + \beta = 1$)를 가정하고 이윤극대화 조건을 정리하면 식 (1)이 도출된다.

$$\frac{W}{P} \equiv w = MP_L \equiv \alpha \frac{y}{L} \dots\dots\dots (1)$$

여기서 W 는 명목임금, P 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며 w 는 실질임금을 의미한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은 노동의 기여분,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w = MP_L$ 의 등식이 성립하며,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산출량(실질GDP) y , 노동투입량(근로자 수) L ,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α 에 의해 정의된다.

노동소득분배율 α 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식 (1)에 자연대수(log)를 취하고 시간에 대

하여 미분하면 식 (2)와 같은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이 도출된다.

$$\dot{W} = \dot{y} + \dot{P} - \dot{L} \dots\dots\dots (2)$$

이론임금인상률 =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위의 관계를 국민경제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 2015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치를 식 (2)에 대입하면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한 이론임금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2015년 1월, 3.4%)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1.9%), 그리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2014년 12월, 1.6%)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임금상승률은 약 4.1% 수준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국민경제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은 실제 임금상승률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론임금인상률은 생산성 이외에 노동시장의 여건, 노사관계, 사회적 분위기(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등 임금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임금인상률을 조건이 다른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2015년 한국노총 요구율 7.8% vs 경총 제시율 1.6%

한국노총은 2015년 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생계비 및 근로자 간 격차해소 등을 감안하여 7.8%(245,870원)로 요구하였고, 비정규직은 1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이 수치는 2014년 8.1%보다 0.3%p 하락한 수준이다.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돼야 할 4인 기준 생계비 월 430만7천840원의 79% 수준인 340만3천194원에 맞춘 것이다.¹⁾

반면 경영계(경총)는 2015년 적정 임금조정률 가이드라인을 1.6% 범위 내로 권고하였다. 통상임금의 확대, 2016년 대기업부터 도입 예정인 60세 정년 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까지 포함해 1.6%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또한 2014년 제시한 2.3%보다 낮은 수준이다.

1) 민주노총은 2013년부터 동일금액 요구로 전환하여 2013년 219,170원, 2014년 225,000원, 2015년 230,000원을 전체 노동자 연대 임금인상 요구안의 하한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표 4〉 경영계의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

	경영계(경총)	노동계		명목임금 상승률
		민주노총	한국노총	
1997	0.0	10.6	11.2	-
1998	-25.0	7.2	4.7	-
1999	0.0	7.7	5.5	-
2000	5.4	15.2	13.2	8.0
2001	3.5	12.7	12.0	5.1
2002	4.1	12.5	12.3	11.2
2003	4.3	11.1	11.4	9.2
2004	3.8	10.5	10.7	6.0
2005	3.9	9.3	9.4	6.6
2006	2.6	9.1	9.6	5.7
2007	2.4	9.0	9.3	5.6
2008	2.6	8.0	9.1	4.4
2009	-	-	-	2.2
2010	0.0	9.2	9.5	6.4
2011	3.5	-	9.4	-0.9
2012	2.9	9.3	9.1	5.3
2013	-	-	8.1	3.8
2014	2.3	-	8.1	2.4
2015	1.6	-	7.8	-

- 주 : 1) 1999년 경총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 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 2) 2004년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 3) 2005년 경총은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 4) 2006년 경총은 수익성 저하 기업과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 5) 2007년 경총은 대출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 인상을 제시함.
- 6) 2009년도는 '2·23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노사가 요구율 및 제시율을 발표하지 않음.
- 7) 2005년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 8) 2011년 민주노총은 전체 정규직 요구율을 발표하지 않고 산별조직이 독자적으로 정하게 함.
- 9) 2013년부터 민주노총은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시함.
- 10) 명목임금 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대상임.

자료 : 한국경총 · 민주노총 · 한국노총 및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각 연도.

3. 2015년 임금상승률은 4.5%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2015년 1월)은 수정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저유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0.3%p를 낮춘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 감소나 중국·유로존·일본·러시아 등의 성장부진으로 세계 경제는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

표하였다. 세계은행(IBRD, 2015년 1월)도 글로벌 경제전망(GEP) 보고서에서 2015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을 3.0%로 예측하였다.

한국은행(2015년 1월)에 따르면,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였다. 이는 당초(2014년 10월) 전망치 3.8%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 저유가 등에 따라 점차 개선되겠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소비 및 투자심리의 부진 장기화 등이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행은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하였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0.5%p 하향조정한 것이다(한국은행 2015. 1. 「경제전망보고서」).

〈표 5〉 2015년 경제전망

(단위 : %)

		2014			2015p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	하반	연간
한국은행 (2015. 1)	GDP	3.7	3.0	3.3(3.5)	3.0	3.7	3.4(3.9)
	민간소비	2.0	1.4	0.7(2.0)	2.3	2.8	2.6(3.5)
	설비투자	7.5	4.3	5.9(5.2)	7.0	5.0	6.0(5.9)
	건설투자	1.9	0.4	1.1(1.9)	2.7	3.8	3.3(3.3)
	상품수출	3.7	0.5	2.1(4.0)	-0.2	7.0	3.4(5.5)
	상품수입	2.3	0.1	1.2(2.7)	0.9	6.0	3.4(5.7)
	소비자물가	1.4	1.2	1.3(1.4)	1.2	2.5	1.9(1.2)
한국노동연구원 (2014. 12)	취업지증가율	2.1			1.6		
	실업률	3.5			3.4		

주 : 1) ()안은 2014년 10월 전망치.

2) p는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4년 12월호.

2014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0.3%p 상승한 3.3%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근로자 기준)은 전년대비 1.4%p 감소한 2.5%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는 고용을 주도하였던 상용직의 정액급여 둔화와 더불어 비상용직의 임금상승률 또한 둔화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 현실화와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회복이 더딘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책 의지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는 임금상승 압력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4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1.9%)이며, 최저임금 인상(7.1%)과 공무원보수 인상률(3.8%) 역시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 임금상승률은 4.5% 수준으로 전망된다. [KLI]

<참고문헌>

정성미·배기준(2014), 「2013년 임금동향 및 2014년 임금전망」,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5~18.